

# 기독교 평신도론

(基督教 平信徒論)

徐 正 運\*

서 언

- I.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 II. 평신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 초대 교회
    - 1) 초 기
    - 2) 속 사도 시대 이후
  - 2. 중세 시대
  - 3. 종교 개혁 시대
  - 4. 근세 시대
- III. 평신도의 직무
  - 1. 교회의 재인식
  - 2. 평신도의 사역
  - 3. 교역자와 평신도
- IV. 결 어

서 언

대체로 기독교는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교회의 존재의의, 사명, 구조 등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한 연구와 이해를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들이 매우 중요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자체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동안 철저한 연구를 못하고 지내왔는데 거기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즉 초대교회에서는 반복되는 박해로 신학적인 문제를 충분히 연구할 기회가 없었고 313년 콘스탄틴대제 (Constantine the Great)에 의해 신교(信教)의 자유가 허락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교회안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 왈가왈부하게 되자 치열한 신학논쟁이 야기되었고 종교회의가 거듭되었다. ①

중세기에는 신학자들의 중요관심이 속죄론에 집중되는 감이 있었고 종교개혁시대에 교회론이 다소 문제시되긴 했어도 그들이 논란한 교회는 아직도 중세기적인 기독교천하에 존재한 교회였던 것이다. 유럽대륙에 편재한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답게 될 수

\* 校牧, 專任講師

註 ① 325년의 니케아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회의, 431년의 에베소회의 및 451년의 칼케돈회의 등은 기독교론에 관한 문제로 모인 종교회의의 들이었다.

있느냐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關心事)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윌리엄스(Colin W. Williams)가 간추려 말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로 행해지며 성도의 경건한 생활의 훈련이 시행될 때 참된 교회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sup>②</sup> 이상과 같은 그들의 견해는 그 당시 교회형편으로는 교회의 가장 미흡한 면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장한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었으나 완전한 교회론이기에 불충분했고 부분적인 설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종교개혁이후의 근세시대에도 교회론은 신학계의 중요한 주목을 끌지 못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결여된채 지나왔는데 이것은 아마도 교회는 깊이 그 자체를 연구할만한 절실한 필요성을 그동안 못 느꼈던 탓이 아닐까 보는 것이다.

초대의 박해가 끝난 후에는 국교화했고 종교개혁이후는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사상이 강하게 작용하여 교회의 기능은 저절로 자명한 것처럼 지나왔던 것이다.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부각된 것은 소위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에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가 짧은 피 선교국가에서 였던 것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란 무엇이며 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등의 문제들이 야기되었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모색해야 되었던 것이다.

하여간 이렇게 연구가 불충분했던 교회론중에서도 평신도(平信徒)에 대한 연구처럼 등한시된 면은 없을 것이다. 평신도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회 이해가 얼마나 불충분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서론에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서 평신도의 의미를 찾아보고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평신도들의 나타남이 어떠한을 개관한후 현대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직무의 어떠한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 I.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교회는 본질적으로 기구나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The People of God)이다.<sup>③</sup> 교회가 처음에 그 말을 에크레시아(ecclesia)로 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④</sup>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자기집에서 불리어 공동장소에 모인 시민의 무리들을 가리켜 쓴 말인데 대개 회중(會衆)으로 번역될 수 있다.<sup>⑤</sup> 이말은 신약시대에 지방의 회중이나 교회를 지칭함은 물론 여러

註 ② Colin W. Williams, *The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p. 101.

③ Paul Minear는 백성(people)이라는 말이 독특한 개념을 가졌다고 한다.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pp. 67~71.

④ Edward Schweizer, *Church Order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61, p. 188.

⑤ Joseph H. Tahyer, *Greek-English Lexion of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 1886), pp. 195~196.

회중들이나 교회들을 가리킬 때도 구별없이 사용했는데 신약성서에서는 거의 단수형으로 썼다.<sup>⑥</sup> 그리하여 신약시대의 교회란 본래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했던 것이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중에 있느니라.”(마태 18 : 20)는 예수의 말씀도 결국 그런 뜻이었으며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롬 16 : 3, 5., 고전 16 : 19)라는 말도 역시 사람들의 모임을 두고 한 것이다.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골 4 : 15)라는 구절도 그런 것을 보여 주며 교회의 원형적(原型的) 형태였던 마가의 다락방도 역시 거기 모여 함께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렇게 교회란 원래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켰고 이런 점에서 때를 따라 모이는 특별한 장소였던 유대교인들의 전통적인 회당(Synagogue)과 구별되었던 것이다.

성서가운데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예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예를 들면 바울이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던 갈라디아교회 사람들을 향하여 보낸 서한중에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스라엘”(갈 6 : 16)이라고 한 것이나, 에베소서에서 사람의 구원받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말중에 그들이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2 : 12)이었다는 등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외에도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벧전 2 : 9),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히 8 : 10), “아브라함의 자손”(갈 3 : 29, 롬 4 : 16), 남은 자로 표현되는 교회(롬 9 : 27, 11 : 5~7), 하나님의 권속으로 나타나는 표현(마 12 : 49~50, 막 3 : 34~35, 눅 8 : 19~21), 형제들(행 15 : 22), 그리고 사도행전, 목회서신, 베드로전서 및 요한 계시록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인 “택함을 받은자” 등의 개념과 표현은 교회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sup>⑦</sup>

이런 개념하의 교회이해는 비단 교회안에서 뿐만 아니고 교회밖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해되었었다. 반기독교도(反基督教徒)나 일반 사람들도 교회를 기구나 건물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그들의 표현은 “이 사람들”(행 5 : 35), “본래 학문없는 범인(Unlearned and Ignorant Men)”(행 4 : 13), “그 도를 좇는 사람들”(행 9 : 2) 등이었으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행 11 : 26)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기구나 건물보다도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이다.<sup>⑧</sup>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회관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의미하는 신자 공동체를 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sup>⑨</sup>

註 ⑥ K.L. Schmidt, “ecclesia”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 Gerhard Kittel,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Eerdmans), Vol., III, pp. 504~505.

⑦ Minear, *op. cit.*, 제3장의 The People of God 참조.

⑧ Mark Gibbs & T. Ralph Morton, *God's Frozen Peopl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p. 34.

⑨ 이장식, 『현대교회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p. 75.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개념속에는 평신도와 교역자의 구별이 없었다. 신약성서에서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라오스(laos)>라 했는데 이 말은 신약성서에 140번 나타나는 말로서 대개는 군중,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흔하게 사용되었으나 바울서신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문서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 말로 사용되었다. (예. 행 15:14, 18:10, 롬 9:25, 고후 6:16, 벧전 2:9, 히 4:9, 8:10, 10:30, 13:12, 계 18:4, 21:3 등). 그래서 바울서신에서의 <라오스>라는 말은 사람들의 국적이나 혈통을 초월한 독특한 집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다.<sup>⑩</sup> 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교회였던 것이다. 이 <라오스>란 전체 크리스찬 공동체를 포괄하였으며 전술한대로 교역자(Clergy)와 평신도(Laity)의 구별이 없는 집단을 의미했는데 후대엔 이 <라오스>라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평신도라고 번역하는 영어의 Layman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고로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는 <레이먼(Laymen)> 밖에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 교회에서 평신도 신학운동의 선구자중의 한분이었던 크레머(Hendrick Kraemer)는 로빈슨(W. Robinson)의 “신약성서안에는 목사(kleros)와 평신도(laos)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였다.”<sup>⑪</sup>는 주장을 뒷바침 하면서 후대교회가 평신도와 교역자의 구별을 뚜렷이 하여 교회를 이원화(二元化)한 것은 교회의 상식적 개념으로 부터의 이탈이라고 보았다.<sup>⑫</sup>

하나님의 <라오스>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대로 봉사(Diakonia)하는 것이며 기계적인 구별이나 직분 또는 봉사(Ministry)에 있어서 상호 불가침적인 경계가 초대 교회에서는 없었던 것 같다. 순교자 스테반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원래 구제와 공제를 위하여 세움을 받은 집사였지만 그의 순교동기는 그의 설교 때문이었던 것이다. (행 7:2-8:1) 이것은 처음의 교회에서는 은사와 기회를 따라 자유로히 봉사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초대 교회에서는 사제적이 없었고 누구나 회개한 사람은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권고할 수 있었다.”<sup>⑬</sup>는 샤프(Philip Schaff)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보고 싶다. 바울서신중에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할 때 애용된 <몸>이라는 표현도 그런 면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교회는 몸과 같은데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그 지체들이 각기 자기 기능을 바로 할 때 몸이 자기 기능을 다 할 수 있듯이,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같은 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체가 자기의 독특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듯이 교회의 각 직분도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안에서 모든 직분

註 ⑩ Strathmann, “laos in the New Testament,” Kittle, *op. cit.*, Vol. IV, pp. 50~57.

⑪ Richard Niebuhr and Daniel Williams, eds., *The Mini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s*, p. 27, Hendrick Kraemer,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p. 52에 인용.

⑫ *Ibid.*, pp. 50~55.

⑬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4), Vol. III, p.124.

이 일체를 이루는 몸으로써 교회를 이해하고 강조한 것은 역시 교회의 근본적인 개념에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계층적인 구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 II. 평신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 초대교회

#### 1) 초 기

유대교적 입장에서 말한다면 기독교는 주로 평신도 운동으로 발단된 것이라는 견해가 옳은 것이다.<sup>⑭</sup> 초대교회의 발단과정에서 유대교의 제사장계급 출신의 지도적 참여는 거의 없었다.<sup>⑮</sup> 예수는 혈통적으로 제사장 계통이 아니었으며 그의 중요한 제자들도 갈릴리지방 출신의 어부들과 세리 및 그의 제사장 계통이 아닌 사람들이었다. 그런 뜻에서 기독교는 처음에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같은 것이 없이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후 교회의 직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항상 사도(使徒)들을 첫째로 꼽았는데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특유한 부류(部類)로 취급된 것은 명백하다. 성서중에 사도들의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안에서 독특한 권리와 지도력을 발휘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들이 독특한 권위를 인정받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에 있었던 것 같다. 첫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졌던 직접적인 동역(同役)의 경험이 중시되었고, 둘째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요 증거자였다는 점과, 세째는 예수께서 그들을 복음의 증언자로 직접 파송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이적기사를 행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점 등이다.<sup>⑯</sup>

특히 첫째항목은 사도들만이 가졌던 특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서도 그들의 권위는 독특한 것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그들을 예우(禮遇)한 면도 크지 않을가 하는 추측도 아울러 가능한 것이다.

이같이 사도들의 위치가 특별한 것으로 취급되긴 했어도 근본적으로 신약성서는 교회의 직분을 상하(上下)로 날카롭게 구별치 안했다고 보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뜻은, 몸의 많은 지체가 있어 각기 자기 책임을 다 함으로 온전한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가지 다른 은사가 있어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이 달라지고 다양해지지만 결국 동일한 성령의 은사요 사역이라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은사가 교회의 직분을 결정한다는 원리에서 보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註 ⑭ George H. Williams, "The Ancient Church" *The Layman in Christian History*, eds., Stephen Neill & Hans-Reudi Webe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p. 28.

⑮ 세례 요한은 제사장계통이었다.

⑯ Newton Flew, *Jesus and His Church: A Study of the Idea of the ecclesia in the New Testament*, (London: The Epworth Press, 1960), p. 131.

것이요 그의 뜻을 따라 인간에게 맡겨지는 것인바 어떤 직분을 가진 자가 다른 직분을 가진 자보다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구별은 부당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로 교회에서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상하의 개념으로 예민하게 구별하기 보다는 베드로의 명백한 선언대로 그리스도안에 있는자는 구별없이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 2:9)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보아진 것이라 믿는다.

## 2) 속 사도시대 이후

처음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행사했던 지도력과 권위가 그후 어떻게 교회안에서 받아들여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1세기말의 교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중의 한사람인 로마교회의 장로였던 크레멘트(Clement)의 사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권위를 후계자들에게 인계했다는 주장,<sup>17</sup> 즉 교회에서의 사도권 계승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크레멘트는 감독의 칭호로 인한 분쟁이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그 후계자들을 임명했다고 하는데<sup>18</sup> 그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 없고 단지 그 사도권 계승이란 것이 사도들의 기능의 계속이지 직제의 계승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a continuation of function but not of a continuation of a order)<sup>19</sup>라는 한슨(Anthony Hanson)의 해명을 따름으로써 사도권의 계승이라는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교역자의 우위성을 뒷받침하는 것과 실제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역사적 조건이 교역자와 평신도간의 상하적인 구별이 없는 원래적인 교회의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특히 계속적으로 발호하는 이단사상과 파상적으로 계속되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정통적인 신앙의 유지 및 계승과 각 지역에 흐터져 있는 개체교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자 이단과의 신학적 투쟁을 전개하여 정통신앙을 수호하며 요동하고 흐터지는 개체교회를 지탱하고 어거해 가기 위하여 지교회(支教會)의 장로나 감독의 위치가 중요해졌고 그 직위가 강력하게 될 필요가 있었다. 많은 신자들이 무식했으므로 이단사상을 자력으로 비판하고 대항하기가 어려웠으며 유식한 층에서 감독이 되는 예가 많았으므로 감독들이 신학연구를 하기에 응이했고 이단격퇴와 정통신앙의 수호를 지도하는데 더 유리했던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가 속 사도시대에 이르러 감독의 권위를 높이고 직위를 강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안디옥교회의 감독이었던 익나시우스(Ignatius)는 감독의 허락없이 교회의 아무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고 감독의 관리없이

註 17 “Clement’s First Letter,” 44.2,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 ed., Cyril C. Richards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I, London: SCM, n.d.) p. 63.

18 *Ibid.*

19 Anthony Hanson, *The Pioneer Ministry: The Relation of Church and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pp. 109~112.

는 세례나 예찬이 허락될 수 없다고 할 정도에 달하게 되었다.<sup>㉔</sup> 폴리갑(Polycarp)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장로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했으며<sup>㉕</sup> 이레니우스(Irenaeus)도 교회에서 장로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이레니우스에게 있어서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은 사도들이 장로들에 의해서 계승되었다는 입장에서 한 말이며 여기서 사도적인 계승이란 “사도적인 신앙과 생활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요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말하는 베드로의 권세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sup>㉖</sup>고로 사도적인 신앙과 생활을 계승하는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3세기에 이르러 키프ريان(Cyprian)은 자기 자신이 박해와 코넬리우스(Cornelius)와 노바티아누스(Novatianus)와의 반목으로 야기된 교회분열의 위기중에 감독직을 맡아 겪은 경험을 토대로하여 교회의 일체성(一體性)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Tertullian)에게 있어서 사도적 계승의 관심은 항상 신앙의 순수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으나 키프리안의 관심은 항상 교회의 일체성에 있었던 것이다.<sup>㉗</sup> 그는 교회의 제도하에 통일을 이루는 교회의 일체성을 강조하면서 감독의 권위를 높이 쳐올렸다. 그리하여 결국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교회안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교역자의 우위성이 명백히 주장되게 된 것이다. 오리겐(Origen)처럼 당대의 탁월한 신학자도 안수를 받지않은 평신도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불가하다고 감독의 제지를 받을만큼 평신도의 지위는 교회안에서 격하되었다.

평신도의 지위가 완전히 이때에 몰락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약화된 것은 사실이었다. 어떤 평신도도 성례전 집행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으며 어떤 개인이 쓴 시를 교회에서 찬송으로 노래할 수 없었고 평신도는 조용하고 암전하게 그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던 것이다.<sup>㉘</sup>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미라노칙령의 선포로 로마제국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종식되어 교회가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케 되었지만 핍박시대에 비대해진 감독의 권력은 박해가 끝난 후에도 원상태로 환원하지 아니하였다. 초창기의 발단과정에서 의미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기본개념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박해와 이단투쟁의 대처로 조직과 구조가 뒤틀린 초대교회의 말기형상(末期形狀)을 사실상 그대로 답습하여 버렸다. 아리우스(Arius)와 알렉산더(Alexander)의 논쟁으로 야기된 교회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소집된 최초의 에큐메니칼 대회였던 니케아종교회의에 감독들이 정회원으로 초청되고 평신도는 제외된채 신조가 결정

註 ㉔ “To the Smyrnaeans” Richardson, *op. cit.*, p. 115.

㉕ “To the Philippians,” *The Apostolic Fathers*, trans. and ed., J.B. Lightfoot, (Grand Rapids: Baker, 1967), p. 97.

㉖ 한철하, 『고대기독교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0, p. 48.

㉗ *Ibid.*, p. 109.

㉘ *Apostolic Constitutions* II, 16 & 21, William H.G. Frend, “The Church of the Roman Empire,” Neill, *op. cit.*, p. 59에 인용.

된 것은 박해가 끝난 콘스탄틴시대의 교회도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그 체질이 전시대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4세기초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도규약에 평신도는 “선한 목자와 같이 감독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주인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요 인자한 스승으로 받들어라.”고 하였고 “감독은 지식의 수호자요 너희들이 올리는 거룩한 예배에서 여러면으로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sup>25</sup>라고 기술(記述)하여 교역자를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위치한 계층임을 강조하여 마치 않았다.

## 2. 중세시대

초대교회의 발달과정에서 의미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인 다이나믹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기본개념은 회복되지 아니했으며 초대교회의 종교화된 말기형상을 사실상 그대로 지니고 중세로 들어왔다. 교역자와 평신도간의 간격은 더욱 현저하게 되어 성례전 집행에서 교역자는 서고 평신도는 무릎을 꿇게 됨으로써 완전히 상하적인 구별이 교회의 예배의식에까지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방 가운데에 성찬상(床)을 두고 신자들이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던 형태에서 성찬상이 제단앞으로 옮겨진 것도 역시 그런 뜻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평신도의 활동이 부분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5세기는 이런 점에서 좀 특기할 만한 시기라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Augustine)은 갑자기 감독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평신도였으며 그의 신학적인 반대자였던 페라기우스(Pelagius)도 평신도였다. 특히 페라기우스가 당시에 과시한 상당한 영향력은 아직도 교회일각(一角)에서 평신도의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류계급 이상의 평신도중에 신학연구의 기풍이 있었다고 보여 지는데 왜 그런 운동이 단절되고 오랫동안 평신도 신학자의 출현이 불가능했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면에서 연구되어야겠지만 야만족의 침입으로 로마제국이 망하면서 학식있고 신앙심깊던 여러 평신도가통(家統)이 무너졌다는데 그 중요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겠다.

교역자와 평신도와의 문제에 관한 한 중세기의 가장 팔목할만한 사실은 로마감독의 권위가 월등히 강화되어 교황이라는 최고위 교역자로 군림한 사실이다. 로마의 권위가 다른 지역을 압도하게 된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주지(周知) 하는대로 로마는 오랫동안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서 로마제국의 유일한 대도시였으며 로마교회는 오랫동안 지상 최대의 교회요 가장 부유한 교회였다. 아울러 사도권을 계승했다는 정통성을 주장한 세력있는 교회로서 다른 지방교회의 여러 문제를 자문하는 역할도 했던 관계로 로마교회는 단연 다른 지역의 교회를 능가하는 권위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외적의 침입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로마 교

註 25 “Constitution of the Holy Apostles,” *The Anti-Nicene Fathers*, eds., Alexander Roberts & James Donalds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9), VII. pp.404~405.



회 감독 레오(Leo) I세에(440~461) 의해 로마교회 감독이 베드로의 교좌(教座)를 계승한 자라는 이론이 강력히 주창되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와 교회들보다 우위권을 준 것이며 그 베드로가 로마교회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를 계승한 로마교회 감독이 다른 모든 교회의 감독보다 권위가 있는 것이라는 이론인 것이다. 이 이론위에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의 권위가 얹혀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많은 이론적 반박이 있다.

칼빈은 베드로가 교회 창설의 첫번째 사람들 중의 한사람이라는 영예는 받을 수 있으나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수위였다는 추론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예지 권력이 아니라고 했다.<sup>26</sup>

현대에 있어서 신약학에 가장 조예가 깊은 학자중의 한분인 쿨만(Oscar Culmann)이 지적한 대로 베드로는 초창기의 첫 교회를 영도했을 뿐이다.<sup>27</sup> 어느정도 교회의 자리가 잡히자 그는 영도권을 예수의 동생 야고보에게 인계하고 선교활동에 전념했던 것이다. 또한 신약성서의 어디에도 베드로와 로마의 관계를 언급한 곳이 없다.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로 가서 순교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sup>28</sup> 그러나 쿨만은 베드로가 교회를 지도했던 것은 예루살렘교회의 초기뿐이었다는 것을 강력히 논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하여간 로마교회의 권위가 강대해진 것은 사실이고 교황의 위세는 종교재판이나 파문제도 등으로 한때 국왕의 세력을 압도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일반 교역자들의 권위도 따라서 강대해졌다. 특히 고해성사의 교리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간격을 상하로 구분시킨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교역자는 일종의 지배계급으로 화했던 것이다.<sup>29</sup>

중세기 교회생활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는 신분과 직분에 있어서 전혀 달랐으며 이 두 계급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세교회의 공식적인 견해였다.<sup>30</sup>

평신도들의 권익이나 자율성이 억압된 데는 당시의 봉건제도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아진다. 군주나 제후들이 개인의 자유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을 좋아안했으리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들을 지배할 수는 없었다. 견고히 제도화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허가하는 이외의 여러 신앙운동이 교회 당국에 의해 이단으로 몰리고 제재

註 2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XX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Book IV, VI., p.5.

27 Oscar Culmann, *Peter*, trans. Floyd Fil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p. 224.

28 *Ibid.*, p. 228.

29 이종성, “목사상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개관” 『현대와 신학』 3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1966, pp. 28~30.

30 Christopher. N.L. Brooke, “The Church in the Middle Age,” Neill *op. cit.*, p. 113.

를 받았지만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종류의 신앙 운동의 지도자들 중에는 특권 없는 교역자들도 끼어 있었으나 많은 경우 평신도들이 지도자들로 활약을 했다. 이들은 강력 화되기 전에 교회의 핍박과 종교재판으로 분쇄당했지만 그들의 신앙운동이 모두가 이단적이었는지에는 의문이 많다. 우리가 보존한 기록은 당시 교회당국자들에 의해 기록된 것인데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장본인들의 기록만으로 그때의 형편을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교역자들에 의한 평신도운동의 탄압이었다고 봐도 좋은면이 있다고 본다. 물론 그들중에는 이단 사장을 품었던 자들이 있긴 했으나 대체로 이런 유의 모든 운동은 교회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즉 이런 유의 신앙운동이 결기된 근원적인 이유는 당시 교회가 평신도의 교육에 등한하고 평신도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적 정열을 표현할 교회활동의 아무 기회도 주지않는 데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sup>㉞</sup>

많은 소 신앙운동이 질식당하긴 했어도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동방으로 교역로가 열리어 동방세계의 영향을 면할 수 없었으며 점차로 눈뜬 당시의 지적 각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도에서 고전을 읽고 성서에 관심을 품게 했던 것이다.

1158년에 보로그나(Bologna) 대학교가 창설되고 이어 파리대학교와 여러 대학이 생겨 평신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서부터 민중에 대한 교회의 지배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는 기미를 보였다. 중세의 대학교들이 교회당국의 상당한 간섭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완전히 지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루네쌍스의 기운이 무르익어갔고 14세기나 15세기 사람들 중에는 제도화된 교회의 권력과 부패와 오류에 대하여 반항하는 기질이 생겼으며 여러 곳에서 그것을 표명하는 용기있고 진실한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영국의 존 위크리프(John Wyclif)와 그의 추종자들(Lollards), 보헤미아의 허스(John Hus) 및 프르렌스의 사보나로라(Germe Savonarola) 등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 3. 종교개혁시대

점차 엿보이기 시작했던 교회에 대한 비판과 경신의 움직임은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이라는 대사건으로 터져 나왔다. 종교개혁의 선봉적인 지도자들은 교역자중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들을 뒷받침하고 종교개혁이라는 대 사건으로 몰아 부친 주동세력은 평신도들이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의 유명한 95개조의 논제를 발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인 토론으로 제안한데 불과했다. 95개조를 쓸 때 루터의 정신상태는 대단히 격분해 있었고<sup>㉟</sup> 그 내용이 도전적인 느낌을 주는 맛이 다소 있었긴해도 그것으로 민중을 선동하고 당시의 교회를 박차고 나올 심산은 없었다. 그 논제가 당시 평신도로서는 못 읽고 학자나 교역자만이 이해하는 라틴어로 쓰여졌다는 사실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루터에

註 ㉞ *Ibid.*, pp.117~119.

㉟ 김성식, 『루터』, 서울: 지문각 1969, p. 170.

게는 교회의 개혁보다 스콜라티시즘의 독무대가 된 신학계에서 성서가 신학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신학의 개혁이 더 관심사였다.<sup>㉓</sup> 그런 의도로 1517년 9월 14일에 97개조를 인쇄하여 친구 학자들에게 배부했으나 학계에선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 그해 10월 31일에 비텐베그(Wittenberg) 성교회문에 붙힌 95개조는 친구들에게 미처 다 배부하기 전에 독일 곳곳에 퍼져 나갔다. 루터 자신도 당황할만치 급속도로 전파되어 불과 2주일 이내에 전 독일에 퍼졌고 1개월 후에는 전 유럽에 알려지게 되어 버렸다.<sup>㉔</sup>

이것은 그만큼 민중(평신도)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는 뜻인데 사태가 이렇게 확대되자 교회당국의 박해가 가해졌고 그 제재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본격화된 것인바 이 거대한 힘은 지도자 몇 사람의 역량 뿐 아니라 그 뒤를 몰아 부친 평신도들의 작용이 배후의 추진력이라고 볼때 종교개혁운동은 어떤 면에서 일종의 평신도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깁스(Mark Gibbs)가 말한대로 종교개혁의 배후에서 움직인 힘은 그들의 세속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구현하고 기쁨을 발견키를 원했던 교회의 평신도들이었다. 그들은 가족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보람찬 크리스찬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던 것이다.<sup>㉕</sup>

종교개혁이 교역자와 평신도간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교회라는 관념을 다시 확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sup>㉖</sup>

루터는 고해성사로 교역자와 평신도간을 차단하고 상하로 구분한 교리가 비 성서적인 것으로 보고 성서에 입각해서 그 제도를 반대했다. (벧전 2:5,9, 계 1:6, 5:10, 20:6, 갈 3:28, 요6:45 등) 그리하여 루터는 믿음을 통하여 세례로 모두가 하나님앞에 제사장직을 가진다는 만인 제사장론을 내 세웠던 것이다.

루터는 교역자직의 무용론을 말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도 말씀의 봉사와 성례전의 바른 집행 및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역자가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교역자직의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한 것이 사실이나<sup>㉗</sup> 평신도의 위치를 약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교회의 필요한 직분을 논함에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의에 장로나 집사의 역할을 증시한 것이나 교회론에 있어서 말씀이 옮겨 선포되고 성례전이 바로 집행되는 곳이라는 루터의 정의에다 생활훈련(discipline)이라는 일면을 덧붙인 것은 루터보다 오히려 교회구조에 있어서 평신도를 염두에 더 두고 있었던 소치였다고 볼 수 있

註 ㉓ Heinrich Boehmer, *Luther Reformation in Light of Modern Research*, tras. E.S.G. Potter, (New York: The Dial Press), p. 90.

㉔ 김성식, *op. cit.*, p. 176.

㉕ Mark Gibbs & T. Ralph Morton, *op. cit.*, pp. 36~37.

㉖ Howard Grimes, *The Rebirth of the Laity*,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p. 51.

㉗ Calvin, *op. cit.*, Bk IV, III., 2.4.6.7 참조.

다. 실 제로 루터교보다 칼빈주의파 교회에서 훨씬 평신도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런 소치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보고 싶다.

낙스(John Knox)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동등성을 확신하고 있었는데 스코트랜드인들에게 보낸 글중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점이 바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는 나의 주장의 근거”<sup>88</sup>라고 했으며 각자의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감독과 왕이 되시오……그곳이 조석(朝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오.”<sup>89</sup>라고 당부했다. 츠빙그리(Zwingli)도 역시 교회의 계급제도를 반대했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근거요 제자들, 즉 모든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받았으며 고위 교역자들이 교회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위에서 있는 전체회중이 교회라고 했던 것이다.<sup>90</sup>

이렇게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교회에서 무시되어온 평신도의 위치를 회복시키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좌파(Left Wing of Reformation)라 불리는 과격파(Radical Reformers)들은 루터나 칼빈 등보다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더 철저히 파기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 4. 근세시대

종교개혁과 그 직후 얼마동안은 대체로 평신도의 활동이 활발했다. 프랑스의 개혁파인 유그노(Huguenots)의 지도자중에 평신도가 다수 있었고 칼빈이 있던 제네바의 교회도 장로의 기능이 중시되는 체제였으며 스코트랜드에서는 칼빈파의 제도가 그대로 받아 들여져서 총회를 위시해서 각종 교회회의에 평신도가 참여케 되었다.

미국의 경우도 역시 뉴 잉글랜드(New England)를 중심으로 정착한 퓨리탄교회에서는 장로의 역할이 꼭 중시되었으며 형편에 따라서 교역자가 없는 지방에서는 평신도중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 침례교운동이나 웨이커교 등은 모두 평신도의 역을 매우 중시한 교파들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개혁을 즈음하여 보였던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평신도에 대한 바른 견해가 전체교회에서 계속 옹호되고 발전되지 못했다. 루터나 칼빈의 이론이 결국 장기적으로 현실화 못하고 원리에만 그치고 말았다는 뜻이다.

만인제사장이라는 원리가 교회에서 지배적으로 적용 못된 이유를 크레머(H. Kraemer)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로 실제에 있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가 반드시

註 <sup>88</sup> John Knox, *Works*, ed., Laing, IV, p.526, Brooke, “The Church of The Middle Ages,” Niell, *op. cit.*, p. 140.

<sup>89</sup> E. Whileley, *Plain Mr. Knox*, London: 1960, p. 151, Neill, *Ibid.*, p. 145에 인용.

<sup>90</sup> Reinhold Seeberg, *Textbook of the History of Doctrine*, (Grand Rapids: Baker, 1956), Vol. II, p. 315.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 둘째는 오랫동안 수동적인 상태에 있던 평신도들이 갑자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으며 셋째로는 종교개혁이 이론적으로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제거했지만 교회에서의 설교의 기능을 증시함에 따라 특수한 자격을 가진 설교자로서의 교역자가 역시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④</sup>

그 외에도 근대에 이르러 잇다른 과학적 제발견과 사회의 산업화가 평신도로 하여금 종교개혁이나 그 직후시기와 같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종래까지 영위해오던 가내 수공업이나 소규모의 농사를 하면서 살던 시대에서 대규모의 산업사회로 발전하자 교역자와 평신도와의 간격문제 보다는 교회와 사회(평신도들의 일상 생활의 장소)의 간격문제로 양상이 변모했던 것이다. 주일날 교회의 예배내용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무관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정에서는 자기의 여가정도 밖에 보내지 못하고 활동시간의 대부분을 집밖에서 생존경쟁이라는 각박한 분위기가운데 싸여 살게 되면서 교회에서 들은 설교와 예배내용이 현실생활과 조화시키기가 곤란한 것을 알게되었고, 점차로 평신도의 교회생활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 주일외엔 교역자와 평신도는 실제로 분리되어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일은 교역자가, 교회밖의 세상일은 평신도들의 분야로 생각하고 질적인 구별이라도 있는 전혀 다른 생활영역인 것처럼 여겼고 크리스찬 정치가는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정신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계의 모랄과 처세술이 따로 있고 상인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시장에서는 철저히 반 기독교적인 것이라 해도 상술을 따라 생활하는 이중 생활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중적이 아닌 신앙생활은 교역자들만의 것이고 평신도는 일상생활에서는 비 기독교적 내지는 반 기독교적인 생활을 해도 불가불 가하다는 식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근대에 이르러 평신도의 위치와 기능이 다시 망각되는 추세속에서도 간간히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눈에 보였는데 존 웨슬레(John Wesley)의 감리교 운동에서의 평신도인 속장의 활동이나 Y.M.C.A. 운동, 주일학교의 창시 등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위대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 III. 평신도의 직무

#### 1. 교회의 재 인식

1948년 암스텔담에서 모였던 제 1 차 세계 교회협의회(W.C.C.)에서야 프로로브스키(Georges Florovsky)가 교회론(ecclesiology)은 이제 겨우 신학적으로 문제시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할 정도로<sup>⑤</sup> 기독교 교리사(敎理史)에서 교회론은 본격적인 연구와 토론이 없이 지나왔다.

註 ④ Kraemer, *op. cit.*, pp.64~68.

⑤ Colin, Williams, *op. cit.*, p. 11.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서 교회문제는 주로 에큐메니칼운동에 지도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교회가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기구라는 것이 신학적인 해명을 얻게 되었고 교회중심주의나 교회가 마치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피란처처럼 되는 것은 그 소명과 본질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규명받게 되었다.<sup>43</sup> 성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오직 한가지 의도에 대한 기록이라는<sup>44</sup> 비새돔(Georg F. Vicedom)의 말에 요약적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의 빛 아래서 교회의 구조나 사명을 찾아보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된 것이다. 교회가 그 시야를 밖으로 돌려 세계전체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가 하는 물음을 진지하게 발했을 때 세계속에 흐터져있는 평신도의 의미와 위대한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막강한 힘을 자체내에 무력하게 동결시켜 두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과 한탄을 금할수가 없었다.<sup>45</sup> 이들 평신도의 의미와 바른 기능을 뒤찾기전에는 교회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1937년 옥스포드회의에 준비된 “교회, 지역사회, 국가”라는 보고서 가운데 올담(J.H. Oldham)은 이미 에큐메니칼연구와 관심의 핵심적인 문제로 평신도의 임무에 관한 것을 지적했었다. 그는 교회가 사회안에서 능력있게 일하려면 일상생활속에서 평신도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과 교회의 예배와 사역(使役)사이에 상실된 유대를 회복하려면 평신도의 임무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46</sup>

1954년에 에반스톤에서 열렸던 제2차 세계 교회협의회에서는 평신도의 재발견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선택되고 논의될 정도로 평신도문제가 교회의 주목거리가 되었다. 그후 계속해서 평신도와 교회갱신에 관한 수많은 저서와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신학적인 토론과 제안이 거듭되고 있으나 교회는 실제로 활발한 갱신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신도가 세계에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교회는 교회이해나 평신도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겨우 그 문제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문제에 낙후성을 나타내고 있다. 대개의 경우 아직도 “에디피스 콤플렉스”(Edifice Complex) 상태에서 헤어날 수 못한채 교회건물의 확장이나 치장에 막대한 힘과 시간을 쏟으면서 사회 망각증의 증상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교회와 사회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이 교회가 사회속에 무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의

註 43 Kraemer, *op. cit.*, p. 130.

44 Georg F. Vicedom, *The Mission of God*, trans. Gilbert A. Thiele and Dennis Hilgendorf, (St. Louis: Concordia, 1965), p. 4.

45 Gibbs와 Morton의 평신도에 관한 유명한 책의 제목을 『하나님의 동결된 백성』(God's Frozen People)이라 한 것은 그런 것을 표시한다.

46 Visser't Hooft & J.H. Oldham, *The Church and Its Function in Society*, (London: Allen & Union, 1937), pp. 117~118.

증거며 이것은 다시 세계안에서 평신도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사명과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작성이 되었으나 일선에 있는 교회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못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말이다.

## 2. 평신도의 사역(使役)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임무가 있다. 교회의 한 분자로서의 교회의 임무의 몫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임무란 단순히 예배당에 가고 헌금을 하는 것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는 더 근원적이며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임무를 포함해서 말한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서 있는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 세웠다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학적인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이다. 그 의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몫을 그 곳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 흐터져 있는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나라는 확장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절(使節)로, 대표로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의 본래적 임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는 그 임무를 자각 못하고 지나는 때가 너무도 많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교역자와 평신도로 구분되는 이원체제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평신도는 주일날 교회에 잘 출석하고 될 수 있는대로 많은 헌금을 바치고 될 수 있는대로 열심히 교회안에 있는 직분(예, 집사, 주일학교 반사등)을 수행하면 모범적인 평신도로 예찬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의 임무를 훌륭히 완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엔 교역자의 책임이 더 크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역자가 그런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목회자가 자기의 회중으로 하여금 세계안에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일상생활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보다는 자기 회중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의 직분에 충실하는 것에 관심이 더 있고 실제로 그것을 더 역설하는 때가 많은 것이다. 자기 취향에 맞는 현실 망각증이 걸린듯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목회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이들의 사역은 교회당중심주의에 매여 있다.<sup>⑩</sup>

그러나 진정한 목회는 현실망각적인 신앙집단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는 평신도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안고 세계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동참케 격려하고 돌봐주는 것에 목회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화를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촉진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註 ⑩ 목회의 성패 여부를 교회당의 크기, 헌금액수, 교인의 수등 교회당안의 통계학적인 면에서만 평가하고 있는 교회실태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일 것이다.

후켈다이크(Johannes C. Hoekendijk)의 유명한 경고처럼 “복음화(Evangelization)와 교회화(Churchfication)는 동일한 것이 아니고 자주 그들은 서로의 최악의 적일 수도 있다”<sup>48</sup>는 심히 아이로니칼한 사실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의 교회화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통한 세계의 복음화가 하나님의 선교의 의도라는 것이다. 고로 세계를 의면한 교회는 복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한 인간의 기구와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굶주린 자와 헐벗은 자들이 우굴거리는 거리에 아무리 웅장한 교회당을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반 브렌(Van Buren)의 탄식어린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그렇게 사치하게 치장 하셨던가. 정말 교회를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하는가. 비싼 색 유리로 그만치 화려하게 꾸며야 하는가. 엄청나게 비싼 그런 악기로 예배를 봐야하며 그렇게 두꺼운 웅단을 바닥에 깔아야 하는 것인가<sup>49</sup> 말이다.

허영과 에디프스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배신하고 그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의 정신상태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나가면 평신도보다는 교역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교회당은 피란처가 아니다. 별장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다. 신사(神社)도 아니고 사원(寺院)도 아니다. 교회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교육을 하고 성례전을 행하며 친교하는 장소요 건물에 불과하다. 그것의 치장과 확장과 위세의 과시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다.

집이 인간생활의 목적자체가 될 수 없고 생활의 수단에 불과하듯이 교회당도 신앙생활과 복음사업의 기구요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는 교회당밖에, 기독교인들의 집단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바른 자각없이 교회에 그 임무를 바로 수행하기 어렵다. 평신도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행동중지 상태에서 수세(守勢)로 물리기만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교회가 낸 『교회의 선교구조(The Missionary Structure of the Congregation)』에 대한 연구 보고서 가운데 현대교회의 선교의 최대의 장애가 교역자와 평신도의 잘못된 자기 이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교역자는 항상 주는 자요 평신도는 받기만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줄로 안다는 것이다. 파송된 군병이요 사도적인 참여구조(Apostolic Go-Structure)로서의 평신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역자 중심의 일인체제의 모이는 구조(One Man System of Come-

註 48 J.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ed. L.A. Hoedemaker & Piter Tijmes, trans. Issac C. Rottenberg,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p. 25.

49 Frederick K. Wentz, *The Layman's Role Today*, (New York: Abingdon Press, 1963), p. 15에 인용.



Structure)에만 교역자와 평신도가 익숙해져 버린데 현대교회의 선교기능의 최대의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sup>50</sup>

이런 교회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단으로 최근에 와서 교회를 사건(event)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의 운동(Movement)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역사속에 참여하여 시간과 공간속에 뛰어들어 활동하는 순례자적인 인간들의 운동속에서 교회의 핵심적인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sup>51</sup>

말하자면 교회에는 아브라함적인 요소와 모세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브라함적인 면이란 교회의 세계안에서의 운동을 뜻하고 모세적인 면이란 기구화된 교회의 여러가지들 뜻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여 모든 안전한 조건들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순례자적인 여행을 한 사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움직이는 교회의 성격을 계속해서 본받자는 것이다. 이 교회의 아브라함적인 활동의 면이 평신도의 사역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고로 평신도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성격의 질문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평신도는 세계안에서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디가서 복음을 전하며 봉사할 것인가고 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공장이나 학교나 시장에 보내져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기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때를 물을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매일 교회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생활의 영역 전반에 교회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평신도가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널(Stephen Neill) 감독은 이 세계에서 평신도가 바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네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첫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항상 사회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줄 알고 그의 일을 봉사적 가치의 척도로 평가해야 하며 세째는 그의 일에 보다 높은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의의를 부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넷째로 그는 세계와 교회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2</sup>

이상의 네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목수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하며 농부는 가능한대로 최량의 농작물을 최고로 수확하도록 자기의 전력을 다해야 옳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인 공장의 직공은 이익과 보상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말고 자기의 재능을 다하여 최량의 제품을 제작하도록 자기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둘째의 요청은 예컨대 크리스찬 상인은 이윤을 얻는데 자기 상업의 최대의 목표와 관심을 두지말고 친절과 신용으

註 50 Williams, *op. cit.*, p. 119.

51 *Ibid.*, 제 2장 The Church as Event 참조.

52 Stephen Neill, "Introduction," *Neill, op. cit.*, pp. 22~25.

로 물품을 거래토록 함으로써 사회를 봉사하는 동기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공직을 맡은 크리스찬 평신도는 그것을 권력과 명예의 기회나 수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있는 그 공직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이나 명예의 유무나 다소의 관점에서 자기 일의 의의와 만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느냐의 견지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세제는 자기 일의 궁극적인 의미를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예컨대 크리스찬 평신도인 의사와 크리스찬이 아닌 의사는 다같이 의술을 베풀지만 그 내면적 의지에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크리스찬인 의사는 자기 앞에서 진료받는 환자가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자며 그의 영혼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이 존귀한 자요, 의사 자신이 구주로 신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대리자로 있다는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겠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인간이 이상에 간단히 요약한 것같이 귀중한 존재인줄 알고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로 부터 위탁받은 의식으로 자기 자녀를 엄숙하고도 진실한 마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교회와 세계와의 근본적인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며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전제로 세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상의 네가지는 평신도의 일상생활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할 기본적인 요건이다. 아주 근본적인 생활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크리스찬 생활에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포괄되어 있다. 비록 평신도자신이 그것을 의식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학적인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sup>28)</sup>는 널감독의 말은 평신도의 의미와 직무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바가 있다. 고로 평신도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고 평신도의 사역없이는 교회는 사역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선교는 전개될 수가 없는 것이다.

### 3. 교역자와 평신도

이런 적극적인 평신도의 사역이 교역자의 직무를 부정하거나 위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신도의 사역을 통하여 교역자의 목회가 사회 각층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진실한 평신도가 존재하지 않는한 교역자의 설교와 가르침이 이 세계안에 구체적으로 행동화 되지 못한다.

반면에 우리가 교회당밖의 평신도의 활동만 역설하는 나머지 교회안에서의 바른 자세와 위

註 <sup>28)</sup> *Ibid.*, p. 25.

치를 잃어서도 안된다. 즉 교회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얻는 감격과 환희와 사명감과 영력(靈力)이 없으면 세계안에서 활기찬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콕스(Harvy Cox)의 경고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회활동을 위한 사역으로 집중하는 나머지 예배를 통해서 얻는 본질적인 영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양쪽을 모두 잃어버릴 위험에 빠진다. 진정한 예배도 상실하고 참된 봉사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sup>54)</sup>

고로 교회가 건실하게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교역자와 평신도가 원만하게 그 각각의 직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교회의 사역은 이중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역자는 “말씀”에 봉사하고 평신도는 그 “말씀”에 응답하는 직무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이 양자는 근본적으로 상호보완 및 의존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의 적절한 직무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한쪽이 부족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55)</sup>

고로 활기있고 건실한 평신도가 세계안에 있으려면 먼저 건실하고 영력이 넘치는 교역자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 사랑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주저없이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장을 신실히 전달하고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면모를 갖춘 교역자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용기와 신실성이 있는 교역자가 없이 참으로 바람직한 평신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교회론적(非教會論的)이다.

위의 말한 것과 같은 교역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통한 훈련을 받은 평신도가 그런 정신과 생활로 세계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이 세계안에서 다이나믹하게 전파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위에 흥왕해 갈 것이다. 이것이 본래적인 교회의 구조요 사역의 모습인 것이다.

#### IV. 결 어

교회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의미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이원적인 구분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던 것이 초대교회 말기에 특별히 이단사상이 여기 저기서 발호하고 정부당국의 연속적인 박해로 교회가 정통신앙을 유지하고 교회의 명맥을 계속하기 위하여 강력한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어 교회의 감독직의 권력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박해가 종식된 후에도 교역자의 권력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권력자로서의 위치가 고정되었으며 중세기의 위세 당당하던 교황의 모습이야 말로 교역자의 권력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이때의 교역자와 평신도

註 54) TIME, March 15, 1968, p. 53.

55) T.F. Torrance, "Service in Jesus Christ," *Service in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66), p. 13.

의 관계는 완전히 지배자와 피 지배자의 관계였던 것이다.

종교개혁은 이전 사태에 대한 내부의 반발이었다. “만인 대제사장”의 원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교회에서 지배되고 억압되던 평신도들이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쫓기했던 것이며 교역자와 평신도간의 상하의 벽을 허무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완전한 성공은 얻을 수가 없었다.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그대로 교회안에 통용되고 그 원리가 교회를 지배하기에는 교회안의 여러가지 여건들이 아직도 미숙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설교자를 중심한 교역자의 위치가 강화되고 평신도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자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은 지나갔으나 루터교회안에도 여전히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명확한 이원체제(二元體制)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시간적으로는 주일, 공간적으로는 교회당의 포로가 되어 존재영역을 스스로 그안으로 제약해 버렸다. 주일이 아닌 다른 날은 신앙심없는 생활도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 기풍이 있었고 교회당밖의 세계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나 책임밖의 구역으로 여기는 풍조가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Lordship)을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만 실행하고 결과적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와 사회에서는 그것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에 빠졌으면서 오랫동안 그것조차 감각치 못하고 지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교역자의 수가 비례적으로 줄어가고 전쟁 등 급격한 변동속에서 교역자없는 교회와 지역이 생기기도 했으며 20세기에 일어난 교회사의 최대사건인 에큐메니칼운동과 피 선교국에 새로 세워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떻게 봉사해야 하느냐하는 등의 문제가 뒤섞여 교회에 대한 신학적 연구가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 결과 교회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여러 각도에서 교회의 자기반성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특별히 교회의 구조면에서 평신도의 의미와 기능이 거의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⑤

또한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기구라는 것이 재천명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주일과 교회당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외침이 고조되었다. 동시에 교회밖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평신도의 위치와 기능이 얼마나 중차대한가 하는 것이 명백해지고 교회구조의 재고와 갱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교회는 예배와 친교를 중심한 내적 기능과 동시에 세계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외적 기능으로 양대분(兩大分)하고 상호조화와 능률적인 움직임이 교회의 기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된다고 보게 되었다. 내적 기능의 중심은 교역자지만 외적인 참여기능의 주인공은 평신도요, 그들의 소명(召名)과 책임은 교역자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며

註 ⑤ 이런 일련의 교회연구 결과 반성을 통한 재인식 때문에 신학자들은 현대를 “교회의 재 발견의 시대”로 표현하는 때가 많다.

세계안의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 교역자보다도 오히려 평신도의 역할어부에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도 변하고 교회의 구조도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나 교회와 세계안에서의 평신도들의 주요성과 신학적인 의미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앞으로의 교회는 더욱 평신도들이 세계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부흥기도 하며 쇠잔하기도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김성식, 『루터』, 서울:지문각, 1969.
2. 이장식, 『현대 교회학』, 서울:기독교서회, 1969.
3. 한철하, 『고대 기독교사상』, 서울:기독교서회, 1970.
4. Ayres, Francis O., *The Ministry of the Laity: A Biblical Expositi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5. Boehmer, Heinrich. *Luther and the Reformation in the Light of Modern Research*, trans. by Pott, E. S. G., New York: The Dial Press.

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XXI of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ed., McNeill, John T., trans. by Battles, Foad Lewi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7. Culman, Oscar. *Peter*, trans. by Filson, Floy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8.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 ed., Richardson, Cyril C.,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I, London: SCM Press.
9. Flew, Newton. *Jesus and His Church: A Study of the Idea of the Ecclesia in the New Testament*, London: The Eqworth Press, 1960.
10. Gibbs, Mark & Morton Ralph T., *God's Frozen Peopl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11. Grimes, Howard. *The Rebirth of the Laity*, New York: Abingdon Press, 1962.
12. Hanson, Anthony. *The Pioneer Ministry: The Relation of Church and Minist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1.
13. Hoekendijk, Johannes C. *The Church Inside out*. ed., Hoedemaker L.A. & Tijmes Piter, trans. by Rottenberg, Issac C.,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6.
14. Hooft, Visser't & Oldham, J.H. *The Church and Its Function in Society*, London: Allen & Union, 1937.
15. Kittel, Gerhar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by Geoffrey, W. Bromiley, Vol. III,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4.
16. Kraemer, Hendrick. *A Theology of the Lait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8.
17. Lightfoot, J.B. trans. & ed.,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67.
18. McCord, James I., & Parker, T.H.L. eds. *Service in Christ*,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 Co., 1966.
19. Minear, Payl. *Images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20. Neill, Stephen & Weber, Hans-Reudi. eds.. *The Laymen in Christian Histo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3.
21. Niebuhr, H. Richard & Williams Daniel D., eds. *The Ministry in Historical Perspective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6.
22. Hoberts, Alexander & Donaldson, James. eds., *The Anti-Nicene Fathers*, New York: Charles Scribner's, 1899.
23. Schweizer, Edward. *Church Order in the New Testament*, London: SCM Press, 1961.
24. Seeberg. Reinhold. *Textbook of the History of Doctrine*,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56.
25. Thayer, Joseph H.. *Greek-English Lexion of New Testament*, New York: American Book Co., 1886.
26. Vicedom. Georg F., *The Mission of God*, trans. by Thiele. Gibert A. & Hilgendorf. Dannis. St. Louis: Concordia Puqlishing House, 1965.
27. Wentz, K. Freberick. *The Layman's Role Todaz*, New York: Abingdon Press, 1963.
28. Williams. Colin W.. *The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정기 간행물)

1. 이종성, "목회자상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개관" 『현대와 신학』 제3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 1966.
2. "Change of Mind and Heart," *TIME*, Mach 15 1968.